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력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부처 내속에 있으니 멀리 찾지 말라

15면에서 계속

고 목이 안 마르면 물을 안 마시고, 옷이 헐었으면 옷을 갈아입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또 몸이 안 아프면 안 먹고 이렇게 자유스럽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마음적으로는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된 이 자체가 지수화풍 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포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꿰뚫지 못했어. 이 광대한 세상이 그대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냐. 즉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 물질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물질이 허망한 게 아니라 무상한 거란 말입니다. 이 물질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을 한 손으로 꿰뚫어서 한 마음으로서 꿰뚫어서 포착한 것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 꿰뚫어도 그 꿰뚫은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의 부처로 이름을 맡겨 놓은 겁니다. 어느 거 대상 하나를 따로 든 게 없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이게 감니까? 부처님은 삼라만세계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 그것을 꿰뚫어서 마음으로서 증득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에 아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증득은 그것을 포착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 일체가 한마음서 나와

저가 자장면 애길 가끔 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먹어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안날 겁니다. 아, 그쵸? 먹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이고 들어 보지도 못했으니 말도 못할 것이고 맛도 모르니 맛이 있다고 얘기도 못할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서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게 마음이 아니 가는 데가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깨우치지 못하고 광대무변하게 영원히 돌아가는 이 도리를 포착 못했기 때문에 증생인 것입니다.

왜 증생이냐? 지혜를 넓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니까 마음이 갈 리가 있나? 향아리 속에서 땀땀다가 몸이 얼어지면 사대로 흘러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모습을 다 정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모두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모습도 자기가 정하는 것이요, 마음도 자기가 정하는 것이요, 살릴살지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포착해서 완벽하게 알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 한 것을 가지고 뭐 그때 그 시절에 그분 이 나오질 않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부처님한테 원망을 하고 이러시지만 우리 선배인으로서 참으로 이 전체를 포착한 분이 만약에 부처님이 아니라면 그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그 광대무변한 법을 포착해서 49년을 살리고 자기 생을 다하면서까지 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입니까? 그렇게 포착했기 때문에 어느 공존 하나도 그분의 모습이 아닌 것이 없고, 그 모든 만물에 나투지 않는 자리가 없애 버렸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지혜를 넓히지 못해서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발목을 빼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지혜가 넓다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 뛰어넘을 것이요 고 만악에 지혜가 없어서 어려서다면 내

가정이라는 향아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야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유로써 마음을 내지 못하니 이거 무슨 까닭입니까. 마음내는 일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마음을 터 내서 한바탕 춤을 추면 될 것을. 그리고 피리를 불고 날아다니면 될 것을.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서야 어찌 이 세상만사를 다 포용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부처님이 오신날은 해년도 없고, 월도 없고 일도 없고 할나도 볼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증생은 일체 만물만생한테 다 주지 못하지만 본래는 그렇게 돼 있어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자유자재력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지 못해서 넓게 쓰지 못하고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자주 포착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정신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는 깨달은 분은 만분이 깨달았든 10만 분이 깨달았든 하나의 부처인 것입니다.

그건 왜냐? 모든 것이 진리가 그대로 돼있는 것을 포착한 거지. 그대로 돼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진리가 돼 있는 것을 포착하고 증득 한 것이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같은데 어딜 가든지 지혜를 넓혀서 그것을 크게 해 놓은 사람은 답은 것도 많을 것이요, 그것을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답할 것이요, 그 차이 뿐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광대무변해서 이 삼



그림 · 최추현

음의 근본인 진짜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있는 줄 알았으니 믿고, 또 모든 고는 거기에서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원인이 된 고를 다 없앨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마음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물질로써 악을 만들고 의학을 발전 시키고 과학을 발전 시키고 이러지마는 이 마음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것을 한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로케트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몸으로 축지법을 썼다고 본다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 개발과 물질 개발이라는 게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그것도 물질적이고 이것도 물질인데 어떤 게 우수합니까? 몸으로 축지법을 하는 것보다 로케트 올라가는 게 더 우수하겠죠? 그러니까 정신계는 무한대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발전 시킬려면 나부터 믿고 알아서 내 자생증생부터 제도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제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님이 없으니 바로 내 한마음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공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는 것. 이게 주인공 자체다. 내가 그래서 땀땀하다 가끔 비유를 하죠. 땀땀에 물건을 집어 넣어서 갈아낼 때 땀땀 돌리는 사람의 마음과 동시에 같이 돌아가니까 이게 주인공이다. 주인공 자체가 죽는 법은 없어요. 영원한 거죠. 우리가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지만 이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가 뭐따르는 것은 어떻게 물건이 돼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가 뒷받침 되죠.

보세요,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나올까요? 자기가

## 내몸 자생증생부터 제도해야 정신계 발전

천대천세계의 모든 여러분을 들이고도 되남고 들이고도 되남는 그러한 공양의 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공양을 한 그릇 올리고 꽃 공양을 올리고 또는 다기물을 올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켜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의 뜻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나큰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고,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너도 지수화풍으로 통쳐져 있고 나도 지수화풍으로 통쳐져 있었노라. 그러나 지수화풍이 없다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흘러지는 거니라, 흘러졌다 다시 모이면 또 형성체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한데 뭉치고 몸이 한데 뭉치면 아무리 큰일도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면 몸도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마음도 천원적으로 한데 합쳐진 블랙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볼바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 꼭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형성체입니다. 즉 말하자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물질을 형성해 내는 공장이라 이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발전을 해서 금속도 쓰고 전력도 쓰고 이렇게 어드든지 닿지 않는 데가 없듯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닿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어서 부처님의 몸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도량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숭배하기 이전에 '너부터 알라. 너의 마음 가운데 부처가 항상 나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체 마음이 한데 모여서 구성체를 만들고 그 구성체가 나가서 작용을 하게끔 돼 있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부부가

한데 합쳐지니까 하나의 구성체가 돼서 또 다른 생명을 형성해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린애 낳을 수가 없죠? 그렇듯이 모든 마음이 합일체가 돼서 그대로 돌아가는 까닭에 물질인 우리의 몸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체죠. 공식이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체면서 공생이면서 공용이면서 바로 공식이다'라고요. 이게 불법의 기본적인 바탕이면서 바로 우리의 실링 살입니다. 우리가 모두 정신계에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뜻을 포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이것을 해야겠다 한다면 모든 일체 제물이 한마음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좋은 길로 돌리고 좋은 것은 감사하게 놓아줍니다. 일체가 다 한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가고 음이 어디 있으며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에 따로 있었습니까.

### 한발 딛고 한손 든 도리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몸통이 바로 법당입니다. 몸통이 속에 부처가 들어 있거든요. 몸통이 없으면 자기 주인이 몸을 고치지, 몸이 몸을 고치는 법 보셨습니까? 어느 집이든지 집이 헐어지면 그 주인이 고치지 할진 집터라 고치라 합니까? 그래서 물이 물을 못 씻고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못 자른다 이 소립니다.

이 광대한 법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구성이 돼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 먹고 사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갈구하는 부처님의 몸이요, 부처님의 원기요, 부처님의 공기요, 부처님의 땅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결성해서 돌아가니까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하신 겁니다. 그

런데 그 색이다 공이다 할 말조차도 없기 때문에 공도 없다, 없는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공이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깨달은 사람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봉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을 두고 우리는 벌써 물을 먹어도 이것은 부처님의 물이죠.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별적인 부처님 아니고 전체가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구성체가 한데 합쳐진 전체의 부처님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물마심)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온기가 지나치면 되면 고열이 되죠. 또 피가 지나치면 백혈이라는 동 심장 관막이라는 동 이런 게 발생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로써 표현을 하죠.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놓죠. 즉 말하자면, 땅의 지기란 말입니다. 땅의 지기와 태양의 온기와 모든 것을 포착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또 수분을 끌어들이고 산소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공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손상하면 안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같이 공기를 해주고 서로 먹고 서로 사는데 나만 살다가 다 잘라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나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발로 땅을 딛고 한 손을 위로 쳐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정도가 지나치면 일이 잘못되고 일이 생깁니다.

이 새가 돌아가는 건 지수화풍이 공전을 해야 돌아가죠. 지수화풍이 근원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몸통이 속의 생명들이 모두 내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자생증생이죠. 그러니까 내 마

마음 먹고 행동하고 말하고 산 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습 대접받으면 못받아요. 이후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라고 믿고 이렇게 말합시다. 개로 태어난다면 개 대접받으면 못 받습니다. 그걸 하니까 봐도 전체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일력이 되고 그게 포착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 그런 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 강도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자에 내가 어리석고 몰랐을 때의 내 모습으로 봐라. 또 잘못하고 어리석고 욕심났고 그런 사랑을 봐도 옛날에 내가 모를 때의 내 모습으로 봐라. 그것은 아주 자비스러운 마음이 전달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대립이 된다면 영원토록 그것이 없히구 설켜서 돌아가지 않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모습으로 보고 모를 때의 내 행동으로 보고, 가난하면 부자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항상 당당하게 건전하고 생동력있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자유를 얻어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평생이라고 해 봤자 얼마나 됩니까. 한철 캄핑 나왔다가 그저 잠시 살다가 가는 그 순간에 세세생생에 영원한 이 도리를 포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이익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다고 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왜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시때때로 항상 모든 것이 공부에 말입니다. 아이, 고놈의 거를 달달달달 외울

려고 그냥 정신을 다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외운 걸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니 그게 써가 먹습니까? 물맛이 좋으니 나쁘니, 뜨거우니 차니, 아무리 따져봐야 한번 먹여주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세생생의 모두를 한데 합친 마음으로서 공양 한 그릇을 감사하게 올렸습니다.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못 한 송이를 올렸고,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못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또 생동력있게 자비스런 마음으로 한 개비를 올렸고 그 밝은 마음으로 형상적인 물질의 초가 아니라 내 마음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착하고 알려면, 나 주인공! 내 영원한 친구! 뭘해야 될 수 없는 친구! 그 친구만 포착해 내면 그것은 사랑이 특 터져서 지구 지구 알아잡니다. 모든 것을 내 영원한 친구, 더하고 덜함도 없는 친구, 뭘해야 될 수 없는 친구, 내가 올면 너도 울고 내가 고생을 하면 너도 고생을 하고 내가 굶으면 너도 굶고 내가 도둑질을 하면 너도 도둑질을 하고 이런 친구가 바로 불성입니다.

### 항상 내 모습으로 보라

그런데 가운데서 부처님을 찾지 못하고 멀리 바깥에서 찾으니 그게 찾아질까? 정말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공수, 부처님의 뼈, 부처님의 가죽, 살, 모조리 다 파악하려면 나부터, 내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고,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알았으면 내 속에 있는 자생증생부터 제도해야 하니까 모든 걸 한마음으로 녹여 포착시키고 같이 돌아가야 몸도 건강합니다. 너, 니가 있어서 대립이 돼서 돌아간다면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가정도 화합하지 못해요. 그렇게 됩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마음으로서의 공양을 이렇게 상대하게 한다면 그릇을 옮긴 것이 너무나 기쁘다. 눈물이 날 지경이죠. 이 맛을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무의미할 겁니다. 내 말이, 그냥 올라가는 물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은 정말 뼈가 아프도록 감사함을 느끼고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너무나, 너가 있음으로써 다 잊노라. 너를 알면은 나를 알고 일체를 다 알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모두 나를 알고 본다면 하다못해 풀뿌리 하나 곤충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이 전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불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지구에는 다 살고 있습니다. 너를 알면은 나를 알고 게 없어요. 공존해서 돌아가면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해 나가는 각각의 소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를 넓게 포착을 못한 사람은 '에이! 요것 때문에 귀찮아 죽겠고 요것 때문에 그냥... 모두' 이러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통이 속을 좀 보십시오.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고 육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뭐 별거 다 있죠. 이 속에,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징그러운 것도 있고 뭐 아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육성을 움직여주게 하고 이 마음도 나오게 하고 저 마음도 나오게 하고 또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고마운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어떤 미물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연등을 다는데 이거는 참모두 그 마음의 중심의 지조를 지키면서 항상 이 자생 증생과 한마음으로서 된 주인공. 이 자체를 바로 각자 마음자리에 다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내내세게나 바깥세게가 아주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것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굴러야 밝아집니다. 하여튼 모두 중심을 지켜서 중도로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육과 패기와 광대한 자유를 갖게끔 정신계를 기릅니다.

※ 위 법문은 1995년 5월 7일 사월초파일 법문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폭본 안목을 보듯 고골본 현상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 삶은 고(苦)가 아니다

AS12 288쪽  
값 6,000원  
이서이군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